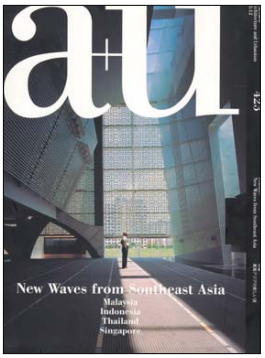
a+u

a+u

2005년 12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물결'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건축사들의 활동은 유럽 및 미국, 일본 등의 건축사들에 비해 그간 잘 알려져 있지 않았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에게도 그들의 건축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다. 이번 특집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 건축사들에 의한 최근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건축사들의 현주소에 대한 정보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특집 :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물결**

동남아시아의 건축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의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 건축의 현주소 또한 그렇다. 동남아시아 국가, 그들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그리고 싱가포르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휴양도시들 덕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방문도 최근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와 같은 휴양지에서 접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대부분 자국의 건축사들의 것이 아닌 외국의 건축사의 손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건축사들의 활동들은 그간 잘 알려질 기회가 적었다.

이번 특집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동남아시아 건축사에 의한 동남아시아의 현대건축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작품은 현대 건축의 기술과 디자인 어휘를 흡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역적 특성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들은 과거 전통건축의 형태를 장식적으로 덧붙이는 단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다. 이들은 그들의 기후, 재료, 문화적 전통 등에 대한 이 시대의 대응법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동남아를 비롯하여 아시아 건축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특집에 소개된 작품들을 보면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국가에서 소개된 작품들은 고급주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직 대규모의 공공프로젝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마치 리조트 건축처럼 보이는 이들 작품에서 그들 건축이 갖는 개성과 담겨진 고민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건축사 케빈 로우의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는 그 좋은 예이다. '사파리 루프'란 본디 열대지방에서 운행되는 SUV인 랜드로버 시리즈를 위해 개발된 장치의 이름이다. 자동차의 지붕에 태양광에 의한 열을 반사시키기 위해 덧댄 알미늄 시트로서 뜨거운 일사로부터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차체와의 사이에 단열층을 형성하고 이 단열층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대류를 일으켜 공기가 대류를 시작해 바람이 통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이를 건축에 응용한 것이 이 프로젝트이다.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는 이 주택의 지붕에 통기가 가능한 공간을 두어 사파리 루프의 원리를 이용해 실내의 공기를 시원하게 유지시키고,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루버를 입면에 부착하여 일사로부터의 보호를 시도하였다. 분명 지역적 특성, 특히 기후적 특성이 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친 건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

사파리 루프 프로젝트

축이다. 그러나 풀장을 갖춘 이와 같은 고급 주택 프로젝트들은 그간 이 나라에 만들어져 왔던 외국 건축사에 의한 리조트 건축과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들 나라의 건축사들의 고민은 무엇이며, 그 고민의 결과가 지역의 건축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의 단서는 이번 특집에서 소개된 아크만의 에세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의 신세대 건축사와 이들의 활동을 서술한 이멜다 아크말의 에세이는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사들이 참여한 저예산 소규모 주택 프로젝트들을 소개하며 우리에게 동남아 건축계가 품고 있는 고민과 그들의 대응을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다음은 아크말의 에세이 내용이다.

■ 오늘의 인도네시아 건축 : 위기속의 고양

인도네시아 경제위기(1997~99년)의 타격을 받은 직후였던 2000년, 현대건축에 커다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금융과 정치의 심각한 위기는 인도네시아 건축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인도네시아 국내 통화 대 미 달러화 상장이 폭락함에 따라 국외의 건축사에게 일을 맡기려는 건축주는 극히 소수에 불과해 진 것이다. 인도네시아인 건축사들에게는 설계의 기회가 열렸고, 인도네시아의 건축사(建築史)는 새로운 일보를 내딛게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건축문제

인도네시아 건축에는 경제위기의 이전에도 이후에 못지않게 많은 장해물들이 존재해 왔었다. 정부에 의한 규제도 그러한 장해물 중의 하나였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인도네시아 건축에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아이덴티티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시 되어왔다. 이와 같은 풍조를 이어받아 현대적인 콘크리트와 유리의 건물에 전통적인 장식을 더한 것들이 출현하게 된다. 지방에서는 주택공급에 있어서도 3개의 중대한 국면이 펼쳐졌다. 첫째로는 주택용지의 부족.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2천만 명에 달하며, 인구의 8할은 결코 넓지 않은 자바섬과 그 외의 섬들의 대도시에 집중하여 지가를 끌어올렸다. 둘째로는 국민의 구매력의 저하이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중류의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으로 양극화되어있으며, 인구의 6할 이상이 하층계급에 속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부문이 개발업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주택을 경제적 상품으로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종종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로서 도시의 중심부나 교외 지역에는 유럽풍의 건축이나 테마파크풍의 주택들이 건설되었던 것이다.

젊은 건축사들과 새로운 운동

젊은 건축사들은 사람들에게 현대건축을 소개하는 한편 새로운 운동(new movement)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는 쟈카르타, 밴돈, 스라바야, 발리 등의 대도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자연히 국가의 경제와 행정의 중심지 수도 쟈카르타에 모여들었다. 그중에서도 신세대의 집단, 자칭 AMI(Arsitek Muda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젊은 건축사)들이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이 비공식적이면서도 강한 결속력을 지닌 집단은 요리 안타, 이리 안토 P.H., 소니 수탄토, 안드라 마틴, 아메드 D. 타디야나 그리고 밤방 에류도하완을 중심으로 1980년대의 말에 결성되어 건축이론의 포럼을 주최하는 등 당시로서는 귀중한 기회들을 제공하였다. 건축교육, 정치, 사회상황에의 불만들은 이들 젊은 건축사들의 결속을 더욱 공고히 하는 요인이기도 했다.

아디 프루노모, 아메드 쥬하라, 제닌 에이드

치간쥬르의 주택

치간쥬르의 주택

리안 그리고 마리아 로잔티나와 같은 AMI 2세대들은 경제위기를 겪던 시기에 등장하였다. 여기서 AMI가 존경해 마지않던 원로 건축사 탄 쟌 아이 또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60세에 이른 이 건축사는 오늘날에도 건축의 혁신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외에도 인도네시아 건축의 촉진을 가져온 상황은 몇 가지가 더 존재한다.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정보들이 물밀 듯이 밀려들어왔으며, 지역사회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감에따라 지역건축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인도네시아 건축의 흥미로운 전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 젊은 건축사들은 탐구심이 깊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학력은 제쳐두고라도 국내의 건축사나 건축 서적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 때문에 그들의 해외의 건축잡지나 유럽, 일본의 초일류 건축사들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던 것이다. 또한 서적, 인터넷, TV, 영화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 외에도 정기적으로 건축시찰을 위해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갔다. 세계 곳곳에서 모은 기술이나 새로운 스타일을 인도네시아에 소개한 것도 바로 그들이었다. 단순함, 순수기하학적 형태, 공간의 질이 그들의 디자인의 기반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인도내시아의 건축사 혹은 해외의 건축사들 중에는 이러한 이념과는 달리 이들의 형태가 인도네시아의 문화나 열대기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스타일이나 형태만을 모방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버네큘러한 전통건축은 현대건축에 밀려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전통적인 장식적 요소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극히 소수이긴 하나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토지의 문맥을 따른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사도 존재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건축사들은 이러한 건축적 이슈들은 다룬 사람들이다.

아디 프루노모는 무더운 열대기후를 그 자신의 독특한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치간쥬르의 주택'은 1,000㎡의 토지에 세워진 연면적 300㎡의 주택이지만 그는 여기서 실내의 건축을 흩어 놓음으로써 통풍과 채광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또한 길게 뽑힌 처마는 실내를 선선하게 유지시켜 준다. 커다란 입목, 담쟁이가 기어오르는 외벽, 잔디가 덮인 콘크리트 지붕, 그리고 풍경을 반사해내는 작은 연못을 배치한 풍경은 시원한 미시기후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예산이면서 합리적인 빌딩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탄 젠 아이는 어느 프로젝트이건 최소한의 공간요건을 설정하는 건축사이다. '치한쥬안의 주택'에서는 5개의 침실 각각에 3m×3m의 모듈을 채용하였다. 또한 테라코타로 된 지붕기와, 목제로 된 문과 창호, 노출콘크리트의 바닥슬래브 등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면서 건축의 간결함을 강조하였다. 이 저렴한 소주택의 총 공사비는 부지 주변에 두른 높이 1m이 담을 포함하여 약 1억 3천만 루피(약 1500만원)밖에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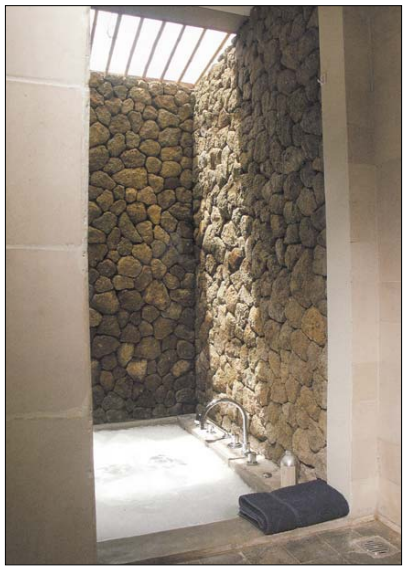
제닌 아드리안과 마리아 로잔테나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인도네시아의 주택에서는 그다지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공간프로그래밍이다.

부엌과 설비공간을 주택에 정면에 배치하여 건축주를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을 주택의 안쪽에 크게 확보하는 것이다. 단순한 기하학형태를 조합한 이 주택의 디자인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앞으로의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상의 건축사들의 작품은 소규모 · 저예산의 개인주택이 중심이지만 본인들은 이와 같이 수고가 많은 작품일수록 자신들의 디자인 능력을 향상시킨다며 환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주택건축은 지역사회의 모습, 사람들의 행동양식, 라이프스타일 즉 사회의 모습을 훌륭히 표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글/강상훈/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인도네시아의 주택



인도네시아의 주택